

대구화교중고등학교 학생의 이중적 언어사용과 혼종적 정체성*

박 규 택**

The Dual Language Usage and Hybrid Identity of the Student of Daegu Chinese Middle · High School*

Park, Kyu Taeg**

요약 : 본 연구는 대구 화교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중적 언어사용과 혼종적 정체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와 한국어 혹은 중국인과 한국인이라는 요인이 교차하는 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관계적 활동들에 의해 생성하고 변화한다. 화교학교 학생들은 유아기에 한국 어머니와 외가로부터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운 뒤, 성장하면서 화교 아버지와 친가로부터 중국어를 학습함에 따라 이중적 언어습관이 형성된다. 그리고 화교학생의 상당수는 한국학교에서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지만 초등학교 이후부터 거의 모든 학생들은 화교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의 사회·문화·역사를 학습하였다. 화교학생은 가정, 학교 그리고 로컬에서 부모, 형제와 자매, 교사, 친구, 이웃과 중국어와 한국어를 매개로 대화를 한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중국어와 한국어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두 언어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인식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화교학생은 자신의 정체성을 중국인과 한국인 모두로 이해하는 혼종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일부는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 반, 중국인 반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본 연구 결과의 객관화를 위해 서울, 인천, 부산에 위치한 화교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대구, 화교, 화교중고등학교, 이중언어, 혼종적 정체성

Abstract :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ual language and hybrid identity of the students of Daegu Chinese Middle·High School. Such a phenomenon is being produced and changed at the site or zone of meeting different or conflict factors such as Chinese and Korean. The Chinese Korean students had learned Korean from their mother and her relative at a young age, and their dual and complex language habit was produced due to the learning of Chinese from father and his relative. A large number of the students were educated at a Korean kindergarten, but they were formally learned Chinese and China's society and culture at a Korean Chinese school after primary school. The Chinese Korean students talk with parents, brother and sister, teacher, friend and neighbor at home, school and local by Chinese and/or Korean. They use a dual language of Chinese and Korean based on various situations, but they do not particularly distinguished both language in cognition. The students have a hybrid identity of simultaneously recognizing Chinese and Korean. But some of them think Chinese or Korean. It is necessary for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be objectified from the following research on the students of Chinese Middle·High School in Seoul, Incheon and Busan.

Key Words : Daegu, overseas Chinese, Chinese Middle·High School, dual language, hybrid identity

1. 서론

소위 ‘단일민족 국가’인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지구화, 신자유주의, 국가 혹은 도시의 사회·경제 재구조화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자, 유학생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민족)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어 왔다(박규택, 2015; 박경환, 2016; 이영민·이용균·이현욱 2012).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 이중언어 교육,

인종 차별, 새로운 가족구성과 갈등, 정체성 혼란 등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진행된 한국의 다문화사회화는 19세기 후반 중국(청국)인의 한반도 이주로 시작된 화교로부터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화교의 사회와 문화를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화교학교, 특히 대구화교중고등학교(이하 대구화교학교라 칭함) 학생의 이중적 언어와 혼종적 정체성을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한국화교의 언어와 정체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01).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HK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pkt11@pusan.ac.kr)

성은 중국어(중국인) 혹은 한국어(한국인)의 이분법적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한국화교는 두 언어를 혼합하여 사용할 뿐만 아니라 중국인과 한국인 모두에 혹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혼종적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와 한국어 혹은 중국인과 한국인이 접촉하는 지대 혹은 영역을 통해서 잘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구화교학생들의 이중적 언어의 사용과 갈등 그리고 혼종적 정체성을 분석하였다.

세계인구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장 높고, 이들은 다수집단이다. 그러나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영토 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즉 화교는 소수자이며, 종종 억압과 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화교는 생존을 위해 혹은 자신들의 사회와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차이나타운, 화교학교, (초)국가적 사회와 경제 조직을 만들고 발전시켜 왔다. 화교학교는 화교가 중국 외부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에서 중국어,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한반도에서 화교교육, 특히 소학교(초등학교)는 20세기 초반 인천(1902년)에서 시작되었고, 193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화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건립되었다. 1943년 2월에 대구화교소학교가 개교하였다. 이에 비해 화교중학교는 중국어와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본격적으로 교육시키는 기관으로 해방이후 서울, 인천, 부산, 대구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들 화교학교는 1970년대 중반이후 한국화교 인구의 감소와 함께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대구화교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언어사용과 정체성은 가족, 학교, 이웃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적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고 변화하였다. 화교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와 한국어로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은 중국인과 한국인의 이분법으로 분리하여 이해될 수 없다. 화교학생의 언어와 정체성은 한국어와 중국어 혹은 한국인과 중국인과 같은 이분법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 부모, 친구, 교사, 이웃에

서 이루어지는 복잡하고 유동적인 관계적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관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박규택, 2015; 서나래, 2014; Meerwald, 2001). 본 연구는 이원론이 아닌 특정한 맥락 하에서 작동하는 관계적 활동의 관점으로 화교학생들의 이중적 언어와 혼종적 정체성을 고찰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화교학생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언어 사용과 갈등 그리고 복합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피조사자(화교학생)¹⁾의 특성

현재(2015년 12월) 대구화교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은 29명이며, 1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2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피조사자를 학년별로 구분하면, 중학교 1학년은 없고, 2학년 8명, 3학년 2명, 고등학교 1학년 9명, 2학년 2명, 3학년 7명이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11명(39.3%)인 반면에 여학생이 17명(60.7%)으로 여학생이 많다. 부모의 국적별로 보면, 부모 모두 혹은 한쪽이 대만인 가정의 자녀, 부모 모두 한국인 가정의 자녀, 중국 국적의 ‘한족 혹은 조선족 중도입국자녀’가 혼합되어 있다(표 1). 화교학생들의 가족 평균은 4.36명이며, 4인(13명)과 5인(6명) 가족이 가장 많다. 부모의 국적을 보면, 아버지는 중화민국(대만) 국적이 많고, 어머니는 대한민국(한국) 국적이 많다.

학생들의 거주지 분포를 보면, 대구광역시 남구(11명)에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다음으로 달서구(5명), 북구(4명), 수성구(3명)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이것은 2013년 12월말 대구에 거주하는 화교의 분포와는 차이가 있다. 대구광역시에서 화교인구가 가장 많은 구는 중구(227명)이며, 다음으로 남구(152명), 수성구(135명), 북구(90명)의 순으로 화교인구가 많다. 특히 화교인구가 가장 많은 구는 중구인데 비해 학생(2명)은 가장 적다. 수성구에도 화교가 많이 살고 있

표 1. 화교학생 부모의 국적

(단위: 명, %)

부모국적	구분	대만(중화민국)	한국(대한민국)	기타*	총계
	아버지	18(64.3)	9(32.1)	1(3.6)	28(100.0)
	어머니	7(25.0)	15(53.6)	6(21.4)	28(100.0)

* 일반적으로 조선족 혹은 한족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중국국적을 소유함.

표 2. 화교학생과 대구화교의 거주지 분포

(단위: 명)

행정구역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합계
중(고등)학생*	2	11	4	2	3	5	0	27
화교**	227	152	90	70	135	80	2	799

* 2015년 12월 초 대구화교학교에 재학 중인 총학생(2명 제외)이며, 포함되지 않은 학생(2명)은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는 1명과 경상북도 거주하고 있는 1명임.

** 2013년 12월 말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대만국적)의 거주지 분포임.

자료: 대구광역시, 제54회 대구통계연보 2014, 120-121.

표 3. 화교학교 학생의 교통수단과 소요시간

(단위: 명)

등학교 교통수단	버스와 지하철	자가용	도보	기타(자전거)	총계
응답 학생수	8	7	10	3	28
등교시 소요시간	30분 미만	30분 ~ 1시간 미만	1시간 ~ 1시간 30분 미만	1시간 ~ 2시간 미만	
응답 학생수	20	5	2	1	28

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학생은 3명에 불과하다. 학생들은 대체로 대중교통(버스와 지하철)(8명)과 자가용(7명)을 이용하여 등학교를 하고 있으며, 걸어서 다니는 학생도 10명이나 된다(표 3).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중교통과 자가용으로 1시간미만이 소요되는 지역에 살고 있다.

3. 대구화교의 인구나 학생수의 변화

대구화교의 역사는 20세기 초반에 시작되었다. “대구에 처음으로 중국인이 거주한 것은 1905년경이었다. 당시 1, 2호의 중국인 상인이 재류(在留)하고 있었다.”(조선총독부, 1924, 131) 일제 식민지 시기인 1930년 대구에 928명의 외국인이 거주하였는데 이 가운데 797명이 화교이었다. 해방 후 1948년에 대구의 화교인구는 633명이었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54년에 1,809명, 1958년에 2,122명 그리고 1962년에 2,229명이 되었다(홍경희, 1966, 195-196).

1961년 대구시의 등록외국인은 1,630명이었고, 이들은 현재 대구시 중구에 속한 종로(793명), 중부(310명), 남부(218명), 서부(83명), 동부(50명)에 거주하였다(대구시, 1961, 5-6). 1960년대 초반 대구시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교는 시의 중심지인 종로와 중부 그리고 인접한 남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였다. <표 4>는 1963년 대구화교의 직업과 인구를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 초반 대구화교의 대부분은 식료업(255가구)과 잡화업(27가구)에 종사하였으며, 소수의 화교는 의약업(한방과 약재상)과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였다. 식료업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농업, 특히 야채 재배 농가는 현재 대구시의 미8군과 대구은행 본점 근처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외국인토지소유금지조치로 모두 사라졌다(대구화교협회, 2010, 61). 1963년 대구화교 총인구에서 학생(557명)이 기타인구(1,140명)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다. 1970년과 1980년 대구시의 직업별 외국인수를 보면, 학생(대부분 화교학생)이 무직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표 4. 대구 화교의 직업별 호수와 인구(1963년)

(단위: 호, 명, %)

	식료업	잡화업	공장업	농업	의약업	행상	공무원	학생	기타
호수	255	27	5	8	8	2	7		
인구	406	78	48	13	21	4	21	557	1,140
인구 비율	17.8	3.5	2	0.5	1	0.2	1	25	49

자료: 대구화교협회집계, 홍경희, 1966, 197에서 재인용.

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대구화교는 국내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외로 이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한국화교는 1945년(12,648명) 이후 1970년대 초반(1972년 최고인구, 32,989명)까지 증가하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에 19,791명이 되었다(왕언메이, 2015). 전국화교의 인구변동과 같이 1970년~1980년대 대구화교들은 정부의 억압과 배제 정책으로 인해 해외로 이주하였고, 이로 인해 화교학생수도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대구화교협회에 따르면, 1960년 3천명이 넘었던 대구지역 화교들은 1970~1980년대를 거치며 미국 등으로 이주해, 현재(2010년)는 1천 130명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 이 때문에 한 때 500명이 넘었던 대구화교소학교 학생들은 1980년대 후반 100여명으로 크게 줄었고, 현재는 단 54명에 불과하다. (디지털 영남일보, 2010년 10월 29일)

〈표 5〉는 196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대구화교학교의 졸업자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58년에 개교한 대구화교중학교는 1961년에 첫 졸업생(28명)을 배출한 이후, 졸업생수는 1970년대 초반(1971년 84명, 1973년 95명)까지 증가한 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90년과 1993년의 대구화교중학교 졸업생수는 28명과 29명에 불과하였다. 대구화교중학교 내에 고등학교 과정이 1968년에 개설된 이후 1971년에 처음으로 20명이 졸업한 이후, 졸업자수는 1980년대 초반까지 증가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4. 화교학생의 이중 언어 습득

대구화교학교 학생들은 또래의 한국학생들과는 달리 중국어와 한국어를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어와 한국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가족, 친구, 이웃 간의 다양한 관계적 활동은 화교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박혜량·김현철, 2016; 손희연·서세정, 2008; Song, 2012). 우선 화교학생이 이중 언어를 어떠한 환경 하에서 습득하는가를 고찰한다.

화교학생의 최초 언어는 부모, 특히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습득된다. 부모가 동일한 언어, 즉 중국어 혹은 한국어를 사용할 경우, 어린이는 하나의 언어만을 습득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어와 한국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어린이들은 이중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화교학교 학생들(28명)의 부모 국적을 보면, 대만과 한국 국적을 소유한 아버지의 비율은 64.3%(18명) 대 32.1%(9명)인데 반해 어머니의 경우는 53.6%(15명) 대 25.0%(7명)로 나타났다(표 6). 일반적으로 화교학생은 태어나면서 접촉빈도가 높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중국어보다 한국어에 익숙하게 된다. 또한 유아 때에 중국어보다 한국어가 발달하는 이유는 한국인의 모계혈족(외가)과 접촉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화교]가정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는 응답자들 중에는 그 이유를 ‘어머니가 중국어를 잘 못해서’로 들고 있다.”(손희연·서세정, 2008, 194) 그러나 화교학생들은 성장하면서 아버지 혹은 부계혈족의 화교들과 만남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보

표 5. 화교중고등학교의 졸업자 변화

(단위: 명)

연도(년)	1961	1965	1970	1971	1975	1980	1985	1990	1993
중학교 졸업	28	35	52	84	77	61	36	28	29
고등학교 졸업				20	62	81	54	38	20

자료: 대구화교학교 내부자료

표 6. 화교학생 부모의 국적

(단위: 명, %)

	대만(중화민국)	한국(대한민국)	기타*	합 계
아버지	18(64.3)	9(32.1)	1(3.6)	28(100.0)
어머니	7(25.0)	15(53.6)	6(21.4)	28(100.0)

* 소위 '신화교'에 속한 한족 혹은 조선족(재중동포)의 자녀2)이다.

표 7. 화교학생의 화교학교와 한국학교의 단계별 비율

(단위: 명, %)

	화교학교	한국학교	기타	총계
유치원	9(32.1)	11(39.3)	7(25.0)	27(96.4)*
초등학교	17(60.7)	3(10.7)	7(25.0)	27(96.4)*
중학교	25(89.3)	1(3.6)	1(3.6)	27(96.4)*

* 무응답 학생이 1명(3.6%)있음.

다 중국어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공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중국어를 배우고 활용하고 있다(표 7). 유치원 단계에서 한국학교에 다니는 비율(39.3%, 11명)이 화교학교의 경우(32.1%, 9명)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거의 모든 학생들이 화교학교에서 공식적 교육을 받았다. 따라서 화교학생들은 유아기에 한국인 어머니와 한국 유치원으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성장하면서 화교 아버지와 학교교육을 통해 중국어를 학습함에 따라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를 습득한다. 화교학생의 언어사용에 관한 한 연구에 의하면, “15명의 응답자 중 8명이 한국유치원을, 6명이 화교유치원을, 1명이 한국과 화교유치원을 동시에 다녔다고 대답했고, 초등학교는 2명이 한국학교에 다녔다고 대답했으며, 중·고등학교는 전원이 화교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한국어라는 절대적인 한국어 언어환경 속에서 한국화교가 [자신의 모국어인 중국어를 유지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화교학교였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여병창, 2013, 277)

대구화교학교 학생들은 가족과 학교를 벗어난 로컬(대구)에서 중국어와 한국어를 매개로 화교 혹은 한국인과 소통하고 있다(표 8). 기회의 많고 적음을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로컬에서 한국인과 대화할 기회는 평균 3.79점(표준편차 1.13점)인 반면에 화교와

대화할 기회는 평균 2.50점(표준편차 1.11점)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높다. 화교학생 28명 가운데 17명(60.71%)이 로컬에서 화교와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거나 혹은 없다고 대답한 반면에 18명(64.29%)이 한국인과 대화할 기회가 대단히 많거나 혹은 많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구의 화교인구가 극히 적음과 관련이 있다. 또한 화교학생들은 로컬에서 화교와 화교친구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다. 특히 28명의 화교학생 가운데 9명(32.14%)은 로컬에서 화교친구와 대화할 기회가 없다고 응답했다.

5. 화교학생의 이중적 언어사용과 갈등

대구화교학교 학생들은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먼저 배우고 있는데, 그 비율은 57.1%(16명) 대 39.3%(11명)이다. 이에 비해 화교학생들은 한국어보다 중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표 9).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 어머니와 화교 아버지로 구성된 화교가정에서 유아기의 언어습득은 어머니와 외가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초등학교이후부터 화교학교에서 중국어로 교육을 받고, 아버지와 친족의 접촉 빈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 학생의 면담에 의하면, “한국에 사니까 한국말을 먼저 배웠다. 학교를 다니면서 중국말을 배웠다. 화교소학교부터 다녔다. 외가 집 사람들은 모두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한다. 소학교 들어가기 전에 화교아버지하고도

표 8. 로컬(대구)에서 화교와 한국인과의 접촉 기회

(단위: 명)

	대단히 많다 5점	많다 4점	중간 3점	많지 않다 2점	없다 1점	평 균
화교와 대화할 기회	2	3	6	13	4	2.50점(1.11점)
한국인과 대화할 기회	9	9	6	3	1	3.79점(1.13점)
화교 친구와 대화할 기회	2		5	12	9	2.07점(1.09점)
한국 친구와 대화할 기회	2	2	10	11	3	2.61점(1.03점)

표 9. 대구화교학생의 최초 습득 언어와 모국어

(단위: 명, %)

	중국어	한국어	기타	합 계
최초 습득 언어	11(39.3)	16(57.1)	1(3.6)	28(100.0)
모국어	16(57.1)	12(42.9)		28(100.0)

거의 대부분 한국말로 대화를 했다. 아버지도 한국말을 잘 하신다.”(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과의 면담) 한국화교의 이중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에서 자신이 태어나서 처음 배운 언어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응답자(21명)의 47.6%(10명)가 한국어라고 대답하였고, 42.8%(9명)는 중국어, 나머지 9.5%(2명)는 ‘동시적’이라고 대답하였다.”(손희연·서세정, 2008, 191).

언어는 다양한 장소 혹은 환경에서 타인과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언어사용을 통해서 개인의 지적 능력이 발달할 뿐만 아니라 정체성이 형성된다. Zhou(2009)는 이웃을 교육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민가족의 자녀들에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Ross(2007)는 어린이들이 등하교 길에 로컬의 일상적 활동에 참여하면서 타인 혹은 사물과 상호작용하고, 이는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특히 Rosenbury(2007)와 Dailey(2007)는 집과 학교를 분리된 실체가 아닌 양자의 요인들, 즉 가정과 학교의 이념, 규칙, 제도, 관습 등이 상호작용하는 사이 공간(in-between space)을 그리고 이곳에서 생성되고 변화하는 학생의 사회화와 정체성을 논의하였다. 화교학생은 가정, 학교, 로컬에서 중국어와 한국어를 매개로 화교 혹은 한국인과 대화를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변화시킬 것이다. <표 10>에 의하면, 화교학생은 가정, 학교 그리고 로컬에서 중국어, 한국어 혹은 두 언어의 혼합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 교사, 친구 이웃의 화교와 대화를 한

다. 화교학생의 언어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이분법이 아닌 환경에 따라 두 개의 언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화교학생은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자매와 대화할 때 중국어보다 한국어 혹은 두 언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특히 화교학생들은 중국어보다 한국어 혹은 두 언어의 혼합을 통해 아버지와 대화를 한다. 화교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와 대화할 때는 중국어로 그리고 친구와 대화할 때는 한국어 혹은 두 언어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표 10). “과거에는 화교학교에서 교사와 대화할 때 중국어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중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학생들이 화교학교에 입학하면서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화교학교는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정통한 교사보다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를 사용할 수 있고,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교사를 선호한다.”(교장 면담). 화교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한국어와 중국어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즉, 화교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듣고 있으며, 한국어와 중국어가 어떻게 혼용되고 알 수 있다. 한 학생은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다른 학생은 중국어로 응답하면서 어색하지도 대화가 단절되지 않는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중국말보다 한국말을 많이 사용한다. 같은 반에 중국인이 없다. 선생님들이 중국어만을 해야 된다고 강제하지는 않는다. 중

표 10. 가정, 학교, 로컬에서 화교학생의 사용언어

(단위: 명)

	언어	중국어	한국어	두 언어 혼합	총계
가정	아버지와 대화	2	14	12	28
	어머니와 대화	3	16	9	28
	형제/자매 간 대화	2	14	9	25
학교	교사와 대화	14	2	12	28
	친구와 대화	3	8	16	27
로컬	친구와 대화	4	12	12	28
	화교 연장자와 대화	14	3	8	25

국말과 한국어말 두 가지 다 사용하는 것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면담) 응답자 27명 가운데 16명이 학교에서 친구와 대화할 때 한국어와 중국어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표 10). 로컬에서 화교학생들은 친구와 대화할 때 한국어 혹은 두 언어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반면 화교 어른과 대화할 경우는 중국어를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 간의 언어교체는 이중 언어 사용 그 자체를 하나의 소통코드로 하는 대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중국어나 한국어 어느 한 쪽에만 고립되거나 정체될 수 없는 화교 화자들의 ‘이중 언어 정체성’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어 주는 것이다”(손희연·서세정, 2008, 204).

1990년대 이후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가정, 학교 그리고 로컬에서 상이한 언어 사용에 따른 갈등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민 가정에서 부모와 학생들 간에 이중 언어 사용으로 인해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북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이민 온 가정에서 자녀들은 집에서 부모의 모국어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지만 이들은 학교 혹은 이웃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영어에 훨씬 편안함을 느낀다(Valentine, 2008). 이로 인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의 단절 혹은 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Song(2012)은 초국적가족(transnational family)의 관점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계급, 정체성 그리고 언어 갈등을 고찰하였다. “그들(대학원 유학생)에게 기대하는 도덕적, 지적 엘리트로서의 역할에 대한 공언과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모로서 자녀들의 영어 습득에 대한 물질주의

적 갈망 사이에 갈등하는 모순적이고 변덕스러운 주관이 반영된 언어적 자산의 형태를 분석”하였다(Song, 2012, 201).

화교학생은 가정에서 혹은 로컬에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이중언어 사용으로 인해 부모 혹은 친구와 갈등이 많지 않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1). 이것은 외국의 갈등사례와는 달리 대구에서 화교인구가 소수이며, 또한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자매 간의 대화에서 중국어보다 한국어 혹은 두 개 언어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이중 언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가정에서 한국어 사용(평균 1.61점), 중국어 사용(평균 1.54점), 로컬에서 한국어 사용(1.32점), 로컬에서 중국어 사용(평균 1.29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대체로 가정과 로컬에서 중국어보다 한국어 사용으로 인해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 이중 언어 사용으로 인해 화교학생들은 가족 구성원 혹은 친구 간에 갈등이 높지 않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생활에서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언어장벽이다. 결혼이민자 응답자(507명) 가운데 43.5%는 언어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대답했고,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12.1%), 한국문화 이해(9.8%), 자녀문제(6.7%), 편견과 차별(6.5%)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표출하였다(대구광역시, 2008, 154). 그리고 언어문제의 어려움은 인종 간에 차이를 보였다.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경우, 응답자 240명 가운데 61.8%가 언어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답하였고, 다음으로 필리핀 결혼이민자 (28명 가운데 42.6%), 중국한족

표 11. 가정과 로컬에서 이중 언어의 사용갈등

(단위: 명)

		매우 많다 5점	많다 4점	중간 3점	많지 않다 2점	없다 1점	평균*
가정 (부모와 갈등)	중국어 사용 갈등	2		2	3	21	1.54점(1.14점)
	한국어 사용 갈등	1	1	3	4	19	1.61점(1.07점)
로컬 (친구와 갈등)	중국어 사용 갈등	1			4	23	1.29점(0.81점)
	한국어 사용갈등	1		1	3	23	1.32점(0.86점)

* 설문지 응답자들이 평가한 점수(5점 척도)를 합산하여 평균한 값이며, 괄호속의 값은 표준편차이다.

결혼이민자(94명 가운데 3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 화교학생의 혼종적 정체성

대구화교학교 학생들의 정체성은 혼종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혼종성(hybridity) 용어는 처음 생물학(유전학)적으로 사용³⁾되었지만 인문학에서 Homi Bhabha의 탈식민지 문화 혼종성 이론으로부터 대중화되었다. 식민지 지배와 피지배, 백인과 흑인, 문화와 자연 등을 “경계지어진 내부(자아)와 외부(타자)의 [이분법적으로] 구획⁴⁾하는 대신 양자의 겹침과 착종을 부각시키며, 혼종성은 이런 관점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그의 혼종성 이론에 따르면, 문화란 결코 통일적이고 확정적인 경계와 함께 전승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차이들이 교섭하는 장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박민수, 2015, 23) 상이한 문화들이 접촉 혹은 충돌하는 장은 제3의 공간(the third space) 혹은 사이공간으로 표현되고 있다(박규택, 2015; Bhatt, 2008). 두 개 이상의 상이한 문화들이 접촉함에 따라 생성되는 제3의 공간에서는 3가지 형태의 잠재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특정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억압 혹은 배제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둘째, 상이한 문화들 간에 충돌 혹은 협상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셋째, 상이한 문화들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혼종성은 제3의 공간 혹은 사이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박규택, 2015).

기본적으로 개념적 혹은 조작적 범주로서의 ‘계급’ 혹은 ‘성’의 단수성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은 근대 세계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주체들 - 인종, 성, 세대, 제도, 지정학적 로컬 - 위치(positions) 자각의 결과이다. ... 이들 사이공간(in-between space)은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아의 전략들을 실천하기 위한 지형을 제공한다. 이러

한 자아 형성의 전략들은 사회를 정의(definition)하는 행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 혁신적인 협력의 장, 투쟁을 주도한다(Bhabha, 1994, 1-2).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3의 공간에서 혼종성이 나타날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는 추상적 논리 혹은 선험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제3의 공간의 관점에서 언어, 혼종성 그리고 정체성을 논의한 연구(Valentine *et al.* 2008; Bhatt, 2008, Kalua, 2009), 혼종성과 전이성 관점에서 정체성을 고찰한 연구(박규택, 2015; Beech, 2011) 그리고 교차로(crossroads)에 위치한 화교들의 혼종성, 정체성, 전이적 공간을 다룬 연구(Meerwald, 2001)가 있다.

화교학생들은 부모와 자신의 정체성을 중국인, 한국인, 중국인과 한국인으로 응답하였다(표 12). 아버지 정체성의 경우, 중국인(10명), 한국인(8명), 중국인과 한국인(9명)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화교학생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화교 2·3세대로 한국어 사용에 불편함이 없고, 또한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온 삶과 연관되어 있다.

이에 비해 어머니의 경우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11명)이 제일 높고, 중국인과 한국인 모두에 속한다는 혼종적 정체성(3명)이 가장 낮다. 화교학생들은 어머니의 정체성을 대체로 중국인 혹은 한국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화교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중국인(10명)으로 혹은 중국인과 한국인(11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6명)가 한국인으로 인식하였다. 중국인과 한국인으로서의 혼종적 정체성은 학생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아버지, 어머니 순서로 낮아지고 있다. 학생의 정체성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정체성과 유사하다. 이는 학생들이 어릴 때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만 소학교(초등학교) 입학이후 중국어와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또한 화교 아버지와 로컬의 화교인과 접촉하면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한 화교 학생은 자

표 12. 화교학생과 부모 정체성의 혼종화

(단위: 명)

	중국인	한국인	중국인과 한국인	기타	합계
아버지	10	8	9	1	28
어머니	11	13	3	1	28
학생 본인	10	6	11	1	28

표 13. 화교학생의 혼종적 정체성의 형성요인

(단위: 명)

		대단히 많은 영향 5점	많은 영향 4점	중간 3점	조금 영향 2점	영향 없음 1점	평균*
언어	중국어	5	9	8	1	4	3.37점(1.28점)
	한국어	6	6	8	5	2	3.33점(1.24점)
화교학교		5	8	10	3	2	3.39점(1.13점)
가족		10	12	3	2	1	4.00점(1.05점)
로컬	친구	6	6	6	6	4	3.14점(1.38점)
	한국인	2	6	4	8	8	2.50점(1.32점)

* 설문지 응답자들이 평가한 점수(5점 척도)를 합산하여 평균한 값이며, 괄호속의 값은 표준편차이다.

신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반은 한국인, 반은 중국인이다. 부모님이 같은 국적이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제가 중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반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 반이라는 생각이 나쁘지 않다. 두 언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도 한국인 혹은 중국인 이런 것에 인식이 별로 없다.”(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면담) 화교학교의 교사는 학생의 정체성을 “우리는 그냥 화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인데, 외국에 사는 중국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였다.(역사교사 면담)

화교학생의 혼종적 정체성은 다양한 요인들, 중국어와 한국어, 화교학교, 가족 그리고 로컬에서의 다양한 관계에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변화한다(표 13).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화교학생들의 정체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평균 4.00점)이며, 다음으로 화교학교(평균 3.39점), 중국어(3.37점), 한국어(3.33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로컬에서 이루어지는 친구(3.14점)와 한국인(2.50점)의 관계는 화교학생의 정체성 형성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14)은 화교학생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

표 14. 학생 정체성 형성요인 간의 관계

	중국어	한국어	화교학교	가족	로컬 친구	로컬 한국인 접촉
중국어	1	0.454* 0.017** 27***	0.244 0.220 27	0.000 1.000 27	0.130 0.518 27	0.309 0.116 27
한국어		1	-0.279 0.159 27	0.173 0.388 27	0.208 0.297 27	0.426 0.027 27
화교학교			1	0.310 0.108 28	0.105 0.595 28	-0.012 0.950 28
가족				1	0.204 0.299 28	0.213 0.276 28
로컬 친구					1	0.712 0.000 28

* Pearson 상관계수

** 유의확률(양측)

*** 응답자수

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관계들 가운데 중국어와 한국어, 한국어와 로컬 한국인, 로컬 친구와 로컬 한국인 간의 관계들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중국어와 한국어 간의 상관도는 0.454(유의수준 0.017)이다. 그리고 한국어 사용과 로컬 한국인 접촉 간에는 0.426(유의수준, 0.027)의 상관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로컬 친구와 로컬 한국인 접촉 간에는 0.712(유의수준, 0.000)의 높은 상관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사용 간에 그리고 한국어 사용과 로컬인과의 접촉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결론

1990년대 이후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다문화현상을 깊이 이해하려면 19세기 후반이후 한반도로 이주한 뒤 뿌리를 내린 한국 화교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화교 사회와 문화를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화교학교, 특히 화교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언어와 정체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화교중고등학교를 사례로 선정하여,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 그리고 소수의 학생과 교장·교사 면담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모집하였다. 그리고 양적 혹은 질적 자료는 단순 기술통계 방법을 통해 분석·해석되었다.

전통적으로 화교 혹은 화교자녀들의 언어와 정체성은 중국어와 한국어 그리고 중국인과 한국인의 이분법적이고 본질적이고 고정된 관점으로 설명 혹은 해석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두 개의 언어 혹은 정체성이 접촉하는 지대 혹은 영역을 설명 혹은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이분법적 혹은 본질적·절대적 사고는 상이한 언어 혹은 정체성이 만나는 지대에서 생성되는 창조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교학교 학생들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언어사용과 정체성을 관계적 활동의 관점으로 고찰한다. 즉, 화교학생의 언어와 정체성은 혼종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중국어와 한국어 혹은 중국인과 한국인이라는 두 가지 요인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관계적 활동에 의해 생성·변화한다. 연구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화교학교의 학생들의 이중적 언어는 부모의 상이한 모국어, 한국과 화교학교의 교차 그리고 로컬(대구)에서의 화교와 한국인과의 대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습득된다. 일반적으로 화교학교 학생들은 유아기에 한국 어머니와 외가로부터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운 뒤, 성장하면서 화교 아버지와 친가로부터 중국어를 학습함에 따라 이중적이고 복합적 언어습관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들의 상당수는 유치원 교육은 한국학교에서 이루어지지만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화교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어 사용하고 중국의 사회·문화·역사를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화교학교 학생들은 로컬의 화교인구가 소수이기 때문에 화교 친구 혹은 화교 이웃을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한국인 친구와 이웃과 대화할 기회가 더 많다.

둘째, 화교학생은 가정, 학교 그리고 로컬에서 부모, 형제와 자매, 교사, 친구, 이웃들과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와 한국어를 매개로 대화를 한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중국어와 한국어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두 언어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인식하고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손희연·서세정의 연구(2008)에 의하면, 화교의 언어사용에 있어서 한국어와 중국어 간의 언어교체는 이중언어 사용 그 자체를 하나의 소통 코드로 하는 대화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화교학생은 가정에서 혹은 로컬에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이중언어 사용으로 인해 부모 혹은 친구와 갈등이 많지 않거나 거의 없다. 이는 로컬의 화교인구가 소수이고, 또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중국어보다 한국어 혹은 중국어와 한국어를 혼합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셋째, 화교학생은 자신의 정체성을 중국인과 한국인 모두로 이해하는 혼종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 학생은 정체성을 한국인 반, 중국인 반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자자신들의 정체성을 혼종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 피조사자 28명 가운데 10명은 자신을 중국인으로 그리고 6명은 한국인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반해 11명의 학생들은 정체성을 중국인과 한국인이 혼합종된 특성으로 인식하였다. 화교학생의 혼종적 정체성은 다양한 요인들, 중국어와 한국어, 화교학교, 가족 그리고 로컬에서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변화한다.

본 연구는 대구화교학생들의 이중적 언어 사용과

갈등 그리고 혼종적 정체성을 고찰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중(다중)적 언어 사용과 혼종적 정체성의 형성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의 초점과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들의 관계는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고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대구화교학생에 한정되지 않고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자녀들의 언어 사용과 갈등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혼종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

- 1) 피조사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장과 교사를 포함하고 있다. 설문지 조사는 대구화교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심층 면담은 소수의 학생, 교장,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설문조사의 결과는 SPSS 통계23을 통해서 처리되었다.
- 2) 지리교사와의 면담 속에서 소위 '조선족 중도입국학생(중국에서 태어나 조선족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뒤 화교학교에 입학 혹은 편입한 학생)'의 한국대학입학에 관한 고민을 들었다. "우리 학교학생(중국국적의 중도입국여학생) 한 명이 조선족이거든요. 부모가 조선족인데 [한국에 온 이후] 국적을 한국국적으로 바꾸었거든요. 이 학생은 [한국대학을 진학할 때] 외국인특례입학 조건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이다. 조선족 아버지가 중국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특례입학에 별 문제가 없다. 문제는 현재 부모가 모두 한국국적으로 변경했고, 학생은 중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 3) Young에 따르면, 이 말(혼종 혹은 혼종성)은 19세기에 들어서는 1813년 처음으로 인간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인종간의 교배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기록은 1861년의 문헌에서 최초로 발견된다. 19세기 내내 혼종이란 말로 표현되는 인종 간 잡종과 변이는 이른바 '근원적 순수성'을 더럽히는 생물학적 형상으로 간주되었다(박민수, 2015, 2).
- 4) Paradies(2006)는 호주 원주민의 정체성을 본질주의 혹은 이분법이 혼종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전자의 관점에 의하면, 원주민성은 배제, 문화적 타자, 주변부 등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Paradies, 2006, 355).

문헌

박경환, 2016, 대안 정치를 위한 공간적 상상력 재고(再考): Doreen Massey(1944~2016)의 『공간을 위하여』(2005)에 대한 논평,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1), 105-123.

박규택, 2015, 제3의 공간과 전이성에 의한 결혼이주 여성의 유동적·혼종적 정체성, 한국도시지리학회

지, 18(1), 31-43.

박민수, 2015, 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 - 호미 바바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39, 23-41.

박혜량·김현철, 2016, 다문화가정의 사용언어가 자녀의 언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4(4), 165-194.

대구시, 1961(단기 4294), 제1회 통계연보.

대구광역시, 2008, 대구광역시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대구광역시·대구경북연구원.

대구광역시, 2014, 제54회 대구통계연보.

대구화교협회, 2010, 100년 이웃 100년 친구 - 대구 화교정착100주년기념자료집.

서나래, 2014, 한국 화교의 문화 혼종성 교육 경험과 정체성 형성: 국제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6(3), 53-82.

손희연·서세정, 2008, 한국 화교 화자들의 이중언어 사용 연구, 사회언어학, 16(1), 185-211.

조선총독부, 1924, 조선의 중국인, 조선인쇄주식회사.

이영민·이용균·이현욱, 2012, 중국 조선족의 글로벌 이주 네트워크와 연변지역의 사회-공간적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3), 55-70.

왕언메이(王恩美), 2015, 한국 화교학교의 법률적 지위 변화와 생존전략, 송승석·이정희 편저, 동남아 화교와 동북아 화교 마주보기, 학교방, 115-159.

여병창, 2013, 화교디아스포라의 한반도 이주와 언어 정체성 고찰 - 한국화교의 이중언어 사용양상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52, 263-293.

홍경희, 1966, 대구시 - 도시지리학적연구, 대구시.

Bhabha, H.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Dailey, A.C. 2007, The in-between places where children are socialized,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56, 38-45.

Beech, N. 2011, Liminality and the practices of identity reconstruction, *Human Relations*, 64(2), 285-302.

Bhatt, R.M. 2008, In other words: language mixing, identity representations, and the third space, *Journal of Sociolinguistics*, 12(2), 177-200.

Kalua, F. 2009, Homi Bhabha's third space and African identity, *Journal of African Cultural*

- Studies*, 21(1), 23-32.
- Meerwald, A.M.L. 2001, Chineseness at the crossroads,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4(4), 387-404.
- Paradies, Y.C. 2006, Beyond black and white - essentialism, hybridity and indigeneity, *Journal of Sociology*, 42(4), 355-367.
- Rosenbury, L.A. 2007, Between home and school,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55, 833-898.
- Ross, N.J. 'My journey to school ...': foregrounding the meaning of school journeys and children's engagements and interactions in their everyday localities, *Children's Geographies*, 5(4), 373-391.
- Song, Juyoung, 2012, The struggle over class, identity, and language: a case study of South Korean transnational families, *Journal of Sociolinguistics*, 16(2), 201-217.
- Valentine, G. 2008, Living with difference: reflections on geographies of encounter,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2, 321-335.
- Valentine, G. Sporton, D. and Nielsen, K.B., 2008, Language use on the move: sites of encounter, identities and belonging,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3(3), 376-387.
- Zhou, M. 2009, How neighbourhoods matter for immigrant children: the formation of educational resources in Chinatown, Koreatown and Pico Union, Los Angele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5(7), 1153-1179.
- 교신 : 박규택,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이메일: pkt11@pusan.ac.kr, 전화: 051-510-7430)
- Correspondence : Park, Kyu Taeg, 46241, Korea Studies Institute, Busan National University, 63-2 Busandaehakro, Kumjeon-gu, Busan, Korea(E-mail: pkt11@pusan.ac.kr, Tel: +82-51-510-7430)
- (접수 2017.04.27, 수정 2017.05.18, 채택 2017.05.20)